

죽음 부른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고교생, P2P로 판타지 소설 블러그 게재 저작권 위반 고소 당하자 스스로 목숨 끊어

인터넷에서 소설을 불법다운 받은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고소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학생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blog)를 꾸미기 위해 P2P(Peer to Peer) 등을 통해 판타지 소설을 불법 다운받았고, 축산업을 하는 부모가 고소인과 합의를 보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을 가슴 아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오후 4시20분께 담양군 무정면 한 야산에서 A군(16·담양 모

고교 1년)이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A군 아버지(50)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죄만 짓고 가서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A군은 이날 낮 12시에 "판타지 소설인 '비커즈'를 불법다운 받아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고소됐다"며 경복 구미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불법다운 받은 소설들을 블로그에 게재해 네티즌들이 다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개했고, 인터넷에서

감시활동을 하던 법무법인이 이를 적발해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군은 지난 8월에도 판타지 소설 '마법사 무림에 가다'를 P2P에서 다운받아 N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자신의 블로그에 띄웠다.

하지만 소설의 작가 B씨로부터 저작권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도 일산 S법무법인인 A군을 고소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 13일 고소취하 조건으로 60만원을 건넨 뒤 S법무법인과 합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부모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한우값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자 '인터넷을 끊고 전자·기계 관련 자격증 4개를 따 취업하겠다'며 최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P2P(Peer to Peer)=개인 과 개인 사이의 MP3·동영상·영화·문서자료 파일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서버에 접속하여 필요한 파일을 공유하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냅스터·소리바다 등이 대표적인 P2P이다.

"아무 죄의식 없이 한 철없는 행동이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고소를 당하자 죽음을 선택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설마했다간 저작권 범죄자 네티즌 불법 다운로드 피소 잇따라

인터넷에서 P2P(Peer to Peer·컴퓨터 사용자들 사이에서 파일을 공유하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사이트)를 이용해 소설이나 만화 등을 불법으로 공유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네티즌들이 늘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건수는 광주 일선 경찰마다 한 달 평균 10~20건. 이들은 국내 유명 P2P 사이트인 '파일구리'(www.fileguri.com), '프루나'(www.pruna.com), '장공유'(www.jjang0u.com), '동키호테'(www.donkeyhote.co.kr) 등에서 소설·만화·영화·음악·그림 등을 다운받는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허락없이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저작권법(제97조의 5 권리침해죄)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현재 작가들은 작품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 법인 팀에 의뢰, 인터넷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자의 ID를 추적하고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P2P 사이트를 이용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 소인은 주로 10~20대 네티즌인데, 이들은 70~1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내고 처벌을 면하고 있으나 일부는 합의금이 없어 입건되는 경우도 있다.

고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지금껏 저작권 위반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권법의 경우 '친고죄(親告罪)'에 해당돼 피해

자 등이 고소·고발을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다 저자 등이 합의금만 받으면 고소를 취소해 주는 형편이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불법 파일 공유 등 종류도 다양해졌다. 과거엔 음악이나 영화 등이 주를 이뤘으나 사용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고소당하면서 점차 사라지고 최근엔 소설이나 만화·그림 등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최모(20·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지난 3일 인터넷 사이트 '큐파일'(www.qfile.co.kr)에서 장성민의 판타지 소설 '퍼펙트 런'(Perfect Run)을 불법 다운로드 후 공유시켰다가 저자로부터 고소당했다. 앞서 지난 2일



광주·전남 한달 평균 10~20건 접수

저작물 불법 유포엔 5년이하 징역형

에는 아이디 'kmmkim'을 사용하는 네티즌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blog)에 영화 '북면달호'를 올려 영화사 '스튜디오 2.0'으로부터 고발당했다가 100여 만원에 합의했다. 또 지난 7월에는 박모(24)씨가 박상철 작가의 풍경화 등을 인터넷에서 복사한 뒤 자신이 만든 달력에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광주북부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설마' 하는 생각이 소설이나 만화 등을 다운받거나 공유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사범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음악 등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저작권법(제 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전남 한달 평균 10~20건 접수

저작물 불법 유포엔 5년이하 징역형



조합원들에 금품 제공 농협조합장 후보 고발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농협협동조합법 위반)로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장성군 모농협 조합장 선거 이틀 전인 지난날 15일 오후 7시경 B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며 이 가운데 40만 원을 인근에 사는 조합원 4명에게 10만 원씩 전달하도록 한 혐의다. /장성=고재빈기자 jbg0@

지리산 방사 반달곰 폐사

24마리중 14마리만 남아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곰금 '달궁'(암컷)이 폐사한 채 발견됐다.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15일 오전부터 달궁에게 부착한 발신기의 신호음이 이상해 현장조사에 나선 결과 지리산 중턱(840m) 숲 속에서 달궁의 사체를 발견했다.

공단은 2004년부터 연해 주산 반달곰 16마리, 북한산 8마리 등 모두 24마리를 지리산에 방사했지만 5마리 폐사, 1마리 실종, 4마리 회수로 현재 14마리만 자연상태로 지내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16일 오후 경기도 교육청이 M학원 출신 학생들의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육청 밖에서 기다리던 학부모들이 통곡하고 있다. 이날 불합격 처리된 54명은 김포외고 합격자 중 서울 목동 M학원 소속 학생 47명과 명지외고, 안양외고 합격자 중 같은 학원 소속 학생 6명 등이다. /연합뉴스

外高 유출 문제 본 54명 합격 취소

내달 20일 이전 재시험... 추가 선발키로

또 학교(김포외고)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및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한편 외고 입시문제 사전 유출 사태 진원지인 김포외고의 장두수 교장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 도교육청이 유출된 문제와 관련된 학생들을 불합격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개인적으로 고의가 아니었던 학생들은 단죄해서 불합격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은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 이 학교와 안양·명지외고 등 3개 학교 합격자 중 김포외고에서 유출된 문제를 본 것으로 밝혀진 54명을 모두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학교의 불합격처리된 인원만큼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기 위해 다음달 20일 이전에 도 교육청의 직접 주관하에 3개 외고에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합격처리되는 54명의 학생은 김

철도·화물노조 파업 유보

협상 타결안돼 불세 여전

전국 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전국 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16일 새벽 4시로 예정됐던 연대파업 돌입시점을 1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파업유보를 선언, 조합원들을 현장으로 복귀시켰다.

광주·전남 여객·물류 수송은 평상시와 다를없이 정상 운행되고 있다. 철도노조 측은 일단 현장으로 복귀해 사측과 교섭을 재개하고 철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측은 추가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 파업의 불씨를 남겼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언론사 홈페이지 음란사이트 광고 수수료 1억 책긴 일당 검거

서울 서대문경찰청은 16일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음란사이트를 광고하는 글과 사진 등을 무더기로 올린 혐의로 방모(31)씨와 최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도매 광고를 통해 회원가입을 성사시키면 건당 회원료(2만9천원)의 50~60%를 수수료로 받기로 특정 음란 사이트와 계약, 지금까지 수수료로 1억여원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피해자가 7천명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도 탐방로 입산 통제

내달 15일까지 산불예방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산불방지를 위해 신안군 흑산면 홍도 1구에서 2구로 넘어가는 탐방로 1.5km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인화물질 반입금지 및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홍도는 천연기념물 제 170호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보존가치가 높은 희귀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휴일 아침 추위 급습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18일 낮 최고 기온이 5~8도에 머무르는 등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물과 농작물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반 추위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평년 평균(2~14도)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주시 공무원 수억 횡령 경찰, 수사 착수

나주경찰청은 16일 나주시청 공무원이 수 억원의 예산을 횡령했다는 나주시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고발장에서 "한씨가 위생매립사업소 근무 시점인 지난 1월

“단풍철 산악사고 조심하세요”

광주·전남 올 238명 死傷

단풍경관을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5일 오후 5시35분께 무등산 장봉에서 중머리재로 하산하던 민모(50·광주시 남구 서동)씨가 넘어져 발목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오후 3시44분께 무등산 봉황대에서 중심사쪽으로 내려오던 조모(66·광주시 남구 방림동)씨가 넘어져 머리와 발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

노현정 부부 이혼설 보도 언론사 고소

노현정 부부 이혼설 보도 언론사 고소

노현정 부부 이혼설 보도 언론사 고소

노현정 부부 이혼설 보도 언론사 고소

매서운 바람

맑은 후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다.

구분	차차 흐려짐	2~11℃
광주	차차 흐려짐	4~12℃
포항	차차 흐려짐	6~13℃
안동	차차 흐려짐	4~11℃
구례	차차 흐려짐	0~11℃
해남	차차 흐려짐	1~12℃
장흥	차차 흐려짐	1~12℃
고흥	차차 흐려짐	2~13℃
순천	차차 흐려짐	0~12℃
영광	차차 흐려짐	1~11℃
진도	차차 흐려짐	3~12℃
전주	차차 흐려짐	1~11℃
남원	차차 흐려짐	-3~11℃
홍산도	차차 흐려짐	7~10℃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3.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2.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6:22 썰물 < 11:34
여수 밀물 < 00:42 썰물 < 20:28
▲해돋이 07:08 ▲해질 17:26
◇주간날씨 기상인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날씨						
최저/최고	1/5	0/9	2/9	2/11	2/13	3/14

